

2012년 이케다 SGI 회장 신년 메시지

희망의 큰 빛을 세계로 미래로!

신생(新生)의 활기로 가득 넘치는 ‘청년학회 확대의 해’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국제참가학회(SGI)는 존귀한 여러분 덕분에 한층 더 크게 발전하고, 세계의 저 지역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젊은 지용(地涌)의 인재들이 맹렬한 기세로 뛰어나오는, 광선유포(廣宣流布)의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도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에 원초(元初)의 태양을 혁혁히 떠오르게 하며, 세계 192개국에서 활약하는 존귀한 동지와 함께, 지역으로 사회로 그리고 미래로 희망의 큰 빛을 넓히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영원한 스승 도다 조세이 선생님은 60년 전(1952년)에 청년부 연구발표회에서 ‘지구민족주의(地球民族主義)’라는 전망을 제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에게 ‘광선유포’ 즉 ‘세계평화’라는 커다란 사명을 위해 ‘그대들은 일어설 텐가! 일어서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스승에게 말씀드린 이 맹세대로 위대한 동지와 함께 세계 광선유포의 기반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년이 그 뒤를 이으며 대원(大願)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법(法)이 묘(妙)하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주처(住處)가 존귀하다.”(어서 1578쪽)고 말씀하셨습니다.

SGI는 왜 이처럼 존귀한 인재의 꽃을 피우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각 국토의 번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는가.

어디까지나 그 까닭은 생명의 존엄을 설한 예지(叡智)의 경전(經典) 즉 ‘어서(御書)’를 근본으로 불법즉사회(佛法卽社會)라는 정도(正道)를 철저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도다 선생님이 원주(願主)가 되어 《니치렌대성인 어서전집》을 발간하신 지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본조(本朝)의 성어(聖語)도 광선(廣宣)의 날에는 또한 가나문자(假名文字)를 역(譯)해서 범진(梵震)에 통(通)할 것이다.”(어서 1613쪽)고 말씀하신 대로, 바야흐로 이 보전(寶典)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서 배독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대성인과 닛코상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스페인어판 어서의 총감수자인 카를로스 루비오 박사는, 13세기 일본 사회에서 민중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서신 니치렌대성인이 서민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투쟁 정신’을 지니고 어떤 박해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며 신념을 관철하신 모습을 진심으로 상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판 어서의 총감수자인 드니 지라 박사도 “니치렌대성인이 무엇을 말하고 전하려 했느냐는 점에 귀를 기울이면, 어서에는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만민에게 피력할 만하며, 깊이가 있고 공통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신투쟁의 역사’가 있고, ‘인류의 공유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귀중한 사상이 있습니다.”라고 통찰하셨습니다.

민족이나 문화 그리고 언어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해 민중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살아갈 힘’을 끌어내지 않고는 가만있지 못하고, 정의와 인도(人道)를 위해 ‘투쟁 정신’을 강화하고, ‘열린 마음’을 넓히는 원천이 바로 니치렌불법입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가 몹시 갈망하며, 인간을 ‘소생’시키고 ‘부흥’케 하는 위대한 철학이 바로 이 니치렌불법에 있다.”고 소리 높여 외쳤으면 합니다.

대성인은 성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수지(受持)해 받드는 이외에 유락(遊樂)은 없으며 현세안온(現世安穩) 후생선처(後生善處)란 것이니라. 다만 세간(世間)의 유난(留難)이 닥치더라도 문제 삼지 말지어다. 현인(賢人) 성인(聖人)도 이 일은 피할 수가 없다.”(어서 1143쪽)

“고(苦)는 고라고 깨닫고 낙(樂)은 낙이라고 열어서 고탐(苦樂)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부르고 계시라.”(어서 1143쪽)

묘법을 근본으로 곳곳이 사는 인생에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 SGI는 ‘변독위약(變毒爲藥)’이라는 희망의 법리를 지니고, 어떤 고난에도 용감하게 정면으로 맞서, 다같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금강불괴(金剛不壞)의 연대이며 선(善)의 스크럼입니다.

“선량한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더욱 선량해진다. 괴로워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뻣다.” 이 말은 스위스 철학자 아미엘의 혜안(慧眼)입니다.

근래 동일본대지진을 비롯해 타이의 홍수와 미국의 허리케인 등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경제불황이 길어지는 속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재건을 위해 일어서서 노고하며 황금처럼 존귀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창가(創價)의 벗이 본인도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벗을 위해 분투하는 일은 얼마나 숭고한 지용보살의 행동입니까.

대성인은 “더욱더 도심견고(道心堅固)히 해서 이번에 부처가 되시라.”(어서 1184

쪽)고 밝히셨습니다.

어느 때든 일생성불(一生成佛)과 광선유포를 목표로 나아가는 불도수행은 ‘지금부터’이고 ‘이곳부터’입니다.

날마다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영원히 전진하는 이러한 정신이 바로 ‘창가’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자이며 듀이협회 회장을 지낸 개리슨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GI는 아직 젊으며 개화기에 있습니다. SGI가 추진하는 운동이 개방적이고 유연성을 지니며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는 한, SGI는 반드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항상 활기차게 구도(求道)하는 생명으로 ‘행학(行學)의 이도(二道)’에 힘쓰고, 진지하게 배우며, 자진해서 용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도전하며 자신의 경애를 비롯해 우정과 신뢰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청년학회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은사가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하신 지 5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나는 은사가 청년에게 유훈(遺訓)으로 의탁하신 역사적 선언을, 은사를 대신하여 전 세계에 넓혔습니다. “자네의 무대는 세계다.”라고 하신 은사의 사자후(師子吼)를 가슴에 품고 대화를 전개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도다 선생님을 위하여!” “도다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라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미혹도 없습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철저히 사제서원(師弟誓願)의 길을 나아갈 때, 자신이 지닌 힘이 무한하게 평평 솟아납니다.

자, 다같이 묘법을 낭랑하게 부르고 “환희 중의 대환희”(어서 788쪽)의 생명을 약동시키며 인류의 희망으로 빛나는 ‘평화’ ‘문화’ ‘교육’의 커다란 연대를 승리로 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경애하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사안운을 더 나아가 영광과 승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강성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2012년 원단(元旦)